

신숙주의 문학과 사상

이이화

역사학자,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1. 전제의 말

신숙주는 우리 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일급 공로자가 되고 오랫동안 문사를 길러 내는 자리인 문형(文衡, 大提學)을 잡았으며 조선 건국 초창기에 문사로서 일세를 풍미하였다. 그러니 그는 학자 문인으로 명망을 얻었다. 따라서 그와 종유(從遊)한 인사들은 청결하고 고고하며 기상이 높은 학자 문인들이 많았다. 정치와 학문 문학이 한 범주로 묶여져, 글 잘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학문이 높은 사람이 등용되는 전통적 사회 구조에서 그는 문사철(文史哲)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휘절(毀節)의 삶을 살았다. 다 알다시피,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그는 절의를 지키지 않고 수양대군에 영합하였다. 더욱이 동료들인 성삼문, 박팽년, 김시습 등이 절의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벼슬을 버리고 유랑의 삶을 살았으나 그는 조정에 몸을 담고 영록(榮祿)을 누리며 시세에 영합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의 궤절은 유교 윤리가 통치 철학의 기본이 되고 인간의 중심 윤리 규범이 된 현실 사회에서 타매(唾罵)의 대상이 되었다. “충신은 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라는 가르침은 따지고 보면 애매하기 짝이 없는 개념이다. 한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자질이 나은 임금을 따라 여러 치적을 남기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돕는 것이 적극적 개념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는 가르침은 유자들 사이에 불문율이었다. 그는 이 불문율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에게 씌어진 온갖 비난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성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왜곡된 현상은 유자들이 불 때에, 양식 있는 지식인이 기대를 저버리고 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작용에서 유발된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망나니”였다면 논외로 칠 수도 있었다. 한편 그를 두고 “항상 대체(大體)를 생각하고 작은 절개에는 구애받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변호만이 아닐 것이다. 아마 우리 역사 인물에서 신숙주의 경우처럼 포폄(褒貶)이 두 극단으로 나누어진 사례도 드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별로 다루지 않았던 신숙주가 남긴 시문을 통해, 그의 사상과 문학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그가 살았던 조선 초기의 사상 경향과 문학 풍토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선 초기의 사상 경향

14세기 끝 무렵 성리학은 중국의 경우처럼 지방 향리 출신의 사대부층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일어난 중소 지주층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를 체계화하여 전파한 학자는 이색(李穡)이었다. 이색의 제자들인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은 스승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실 정치에 적용하였다. 두 학자는 성리학 원리에 따라 군주론을 폄하며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을 비판하는 이론들을 냈다. 이는 이색이 불교를 교화의 수준에서 인정한 경향과는 사뭇 달랐다.

정도전은 “이(理)는 심(心)과 기(氣)의 근본이다. 본디 이가 있는 뒤에 기가 있고 기가 있는 뒤에 만물이 있다. 사람도 만물의 하나로 이와 기가 합해져 발생하고 존재한다. 그러기에 이는 천지에 앞서 존재하고 이로 해서 기도 생기고 심도 생겨난다.”라고¹⁾ 주장하였다. 그는 도교에서는 기로만, 불교에서는 심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가 근본임을 모르는 그릇된 이론이라고 갈파하였다.

또 사람에게서는 성으로, 자연에는 오행으로 구현되는 이가 사물의 발생과 소멸을 결정하며 사회의 윤리 도덕과 질서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불교가 윤리 도덕을 저버리는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의 저술 <불씨잡변(佛氏雜辨)>은 불교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이론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책은 조선 건국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권근은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천지의 이와 기를 온전히 받아 나오므로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며 하늘과 땅과 더불어 세 기본 요소를 이룬다. 천지의 이는 사람의 성품, 천지의 기는 사람의 육체를 이룬다. 그리고 심과 이와 기를 모두 겸해 얻어서 사람의 일신을 주재한다.”라고²⁾ 하였다.

이것이 주리론이다. 주리론의 입장에서 보면 군주는 이의 표상으로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따라서 임금은 백성을 한결같이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 인덕을 갖추어 위민의 군주가 되면 충(忠)과 의(義)로 받들어야 하나 백성을 폭압으로 다스리면 중국 고대의 걸주(桀紂)처럼 방벌(放伐)할 수 있다. 고려 왕조의 우왕 공양왕은 걸주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중앙집권적 전제 왕권을 다지는 이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늘의 대행자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되면 이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이기설 또는 주리론에 바탕하여 조선조 건국 이념이 정립되었으며 따라서 주자학적 성리학 이론이 교조성을 띠고 사상 학문을 압제하였다. 특히

1) 정도전, 삼봉집(三峰集), 심기이편(心氣理篇).

2) 권근, 양촌집(陽村集), 태극도설(太極圖說).

불교를 이단으로 몰아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였으며 15세기 끝 무렵 사람들이 대거 중앙 정계에 등장하면서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신숙주는 정도전 권근이 죽은 뒤에 벼슬길에 나왔으나 불교의 탄압이 뒤 풀이 되는 조건에서 정치계의 중견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며 사림 정치가 등장할 때 원로 정치가의 위치에 있었다.

3. 신숙주의 사상적 편모(片貌)

신숙주는 세종의 문화 정치에 참여하고 공헌하였다. 세종은 여러 정책을 펴면서 때로는 신하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불교 정책일 것이다. 세종은 초기에는 불교를 이단으로 보아 억제하였으나 만년에는 내불당(內佛堂)을 재건하는 등 불교 옹호 정책을 폈다. 이에 많은 유학자들, 특히 집현전 학사들은 이를 반대하여 공관(空館)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세조는 세종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불교를 옹호하였으며 때로는 많은 경비를 들여 원찰(願刹)을 세우기도 하고 불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세조의 불교 정책을 반대하는 유학자들이 있었으나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다. 이는 세조의 무단적 정치 운용에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조건 탓일 게다.

그런데 신숙주는 불교의 이단 논쟁에 끼어 들지 않았다. 그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의 부드러운 성품이나 합리적 사고 탓일 것이다. 이를 세종과 세조에게 영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유학자 또는 사림의 명망을 얻으려면 이단 논쟁에 뛰어들어 양단(兩斷)의 칼을 휘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김종직(金宗直)처럼 종장(宗匠)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여러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신숙주의 시문집인 <보한재집> 17권에 담긴 내용에는 성리학 관련 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보통 고위 벼슬아치나 유학자들이 남긴 시문집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잡저(雜著)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경서의 한 대목을 따와 중언부언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것이 통례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풍조를

외면하였다. 그도 유교 교육을 받아 경사(經史)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학(禮學)에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에 관련된 저술을 쓰지 않았다.

신숙주의 후배인 임원준(任元濬)은 다음과 같은 글로 그를 평가하였다.

문장에 능숙한 자가 반드시 정치를 잘 하는 것도 아니요 정치를 잘 하는 자는 본시 문장에는 능숙하지 못하니 두 가지 재능을 겸하기는 더욱 어렵는데 신문충공(신숙주의 시호)께서는 타고난 바탕이 뛰어나게 우수하고 덕스러운 인품이 일찍이 이루어져 옛 전적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필의 세계에 한가히 노닐어서 ……³⁾

이 글은 신숙주가 문장에 능숙한 재사로 정치적 업적을 남겼다는 뜻이다. 그는 경사와 고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역사 서적과 예서(禮書) 운서(韻書) 병서(兵書) 편찬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글에는 옛 전적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 당시 벼슬아치나 선비들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이든 개인의 소회를 밝히는 글이든, ‘공자왈……, 주자왈……, 또는 주역이나 서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로 시작하여 자기의 학식을 과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는 이런 현학(銜學)을 뽐내지 않았다.

그가 1474년(성종 5) 재변으로 사직소를 올릴 때 “신이 들으니 비움을 줄이는 것이 업무를 줄임만 못하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 백성이 부유해지는 것만 못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다스림도 너무 빨리 성과를 얻고자 하면 마땅치 않고 건의를 들어줌도 너무 잡되어서는 옳지 않으며 형벌을 의논할 때에도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쓸 때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을 좋아해서는 안 되며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

여기에서 “신이 들으니”라는 문구 아래의 내용은 여러 경적에서 인용한 것

3) 신숙주, 보한재집 서문, 이 시문집은 1984년 <보한재전서>라는 이름으로 번역 간행되었다.

이지만 번잡스럽게 하나씩 밝히지 않고 뭉뚱그려 적었다. 그는 공론이나 관념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편모를 보여 주었다. 그는 현실 정치가로서 유학을 교양으로 또는 정치 수단으로 원용하되 그 교조성을 배격한 모습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적 측면을 굳이 말한다면 현실 정치에 토대를 두면서 실질적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초에서 불교를 수용할 수도 있었으며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 풍토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색된 사상 풍토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으며 사회 모순을 철저하게 지적하지 않아 사회사상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뚜렷한 사상적 이론을 별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그의 사상적 접근 태도를 거론하는 정도로 그쳤다.

4. 조선 초기 문학 풍토

고려 후기 곧 14세기의 한문학은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한유(韓愈, 호 昌黎), 소식(蘇軾, 호 東坡) 등 중국의 역대 시인 문사들의 글을 읽고 본받는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현실의 모습을 서사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 문사가 이인로(李仁老), 이규보(李奎報), 이곡(李穀) 등이었다. 조선 초기에도 이런 경향에 따라 소식과 황정건(黃庭堅)의 시풍과 문장이 풍미하는 풍토였다. 아직까지 이백, 두보 등의 당풍(唐風)이 문단을 휩쓸지 않는 단계였다.

한편 고려 말기부터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문장과 시에 도학적 내용을 깔아 두는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이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이었다. 이들이 정계와 학문을 주도하자 많은 문인 학자들이 뒤를 따랐다. 곧 성리학의 요의를 적은 글을 구사하면서 성정(性情)의 바름을 찾아 번란(煩亂), 음벽(淫僻)을 배제한 것이다.⁴⁾

4) 김태준(金台俊), <조선한문학사>, 경성: 조선어문학회 발행(1931) 참고.

이와 달리 고려 말기의 문풍을 이어가면서 문장의 표현을 아름다운 문체로 구사하고 짜임새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문사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시문에는 도학적 분위기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신숙주를 비롯하여 변계량(卞季良), 정인지(鄭麟趾), 서거정(徐居正) 등이 그런 부류이다. 변계량, 정인지는 대제학을 오래 맡으면서 성삼문, 박팽년, 이개(李垔), 하위지(河緯地)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등 집현전 학사들은 일세의 학자 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들이 뚜렷한 문학적 개성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문사 신숙주의 명성

1442년(세종 25)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그는 27세의 청년으로 서장관의 직책을 받았다. 그가 이 임무를 맡은 것은 그의 학식과 문학을 높이 산 것이다. 그가 일본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병풍, 족자, 종이 등을 가지고 몰려와서 시문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붓을 잡고 서슴없이 써 주어 그 곳 사람들을 탄복하게 하였다 한다. 그가 돌아와 일본의 제도 풍속 등 여러 사정과 멀리 유구(琉球)의 정황까지 적어 조정에 알렸다. 만년에 이를 모두 모아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라는 이름으로 조정에 올려 일본 등 해양국의 외교 길잡이의 자료로 이용케 하였다.

1451년 명 나라의 사신 예겸(倪謙)이 왔을 때 성삼문과 함께 접반사(接伴使)의 임무를 맡았다. 시를 잘 짓는 벼슬아치를 뽑아 명 나라 사신들과 시를 주고받는 시합을 벌였는데 이를 수창외교(酬唱外交)라 한다. 그 전에는 명 나라 환관들이 사신으로 와서 조선 조정의 비웃음을 받아 이때 처음 문사를 보내왔던 것이다. 그는 예겸에게서 “동방의 거벽”이라든지 “굴원(屈原)의 문단에 올랐다”라는 찬사를 받았다.⁵⁾ 예겸은 명 나라 한림학사로 일급 문사의 반열에 있었다. 이때부터 수창외교의 첫 길을 열었다.

5) 보한재집, 연보에 나옴.

그 뒤 신숙주는 평생 동안 사대 교린(交隣)의 글을 담당하여 지었으며, 늙어서도 젊은 문사들이 지은 외교 문서를 검열하고 운색하였다. 외교 문서의 전문가였던 셈이다.

신숙주가 사신의 한 사람으로 1452년(문종 2) 북경에 갔을 때 예겸에게 절구 두어 편을 지어달라고 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숙주가 새로 별장을 강가에 두었는데 정자가 강물 바로 옆에 있어서 동쪽으로는 노랑진이 바라보이고 서쪽으로는 양화나루가 바리보이며 강을 따라 위 아래에 인가가 서로 연달아 있고 왕성(王城, 서울)에 가까우므로 배들이 돛대로 베를 찌는 듯이 오르내립니다.

강의 남쪽에는 넓은 들이 아득히 보이고 들 밖의 산에는 구름과 놀이 나타났는가 싶더니 스러지며 굽이도는 물은 고기잡이 노래와 화답하는 속에 물새가 지저귀며 나르니 사람으로 하여금 티끌 세상을 벗어나 고상한 취향을 느끼게 합니다.

숙주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었으나 몽매하여 얹이 없고 성품이 영화로운 녹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벼슬살이하려는 뜻이 얹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작으나 관직은 이미 분수를 넘었으니 뜬 인생은 틈을 지나는 망아지처럼 잠깐인데 스스로 골몰해 보아야 무엇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곳에 깃 들어 살며 결백한 뜻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직 번잡을 물리치고 소일(消日)함이 한가함만 같지 못하고 한가함도 또한 연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한(保閑)으로 정자 이름을 지었습니다.⁶⁾

이 편지에 그의 인생관이 잘 드러난다. 예겸과 같은 훌륭한 문사를 존경해 그의 시를 얻어 정자에 걸어놓고 음미하겠다는 뜻을 표하였는데 그 속에 정작 그의 삶의 편린을 엿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결백한 선비의 길, 명리를 멀리하고 한가한 삶을 누리며 문학에 정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아호를 보한재(保閑齋)로 지었다. 하지만 시세는 그의 이런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

6) 보한재집 16권, 서간의 재연경회동관정예학사겸수간(在燕京會同館呈倪學士謙手簡).

6. 회한과 반성의 시 경향

그의 시에는 용사(用事)를 별로 쓰지 않고 자기 표현에만 충실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시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시에 과시하여 용사를 함부로 쓰는 풍조를 그는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김시습처럼 농민이나 민중의 고통을 담은 서사시를 쓴 것도 아니다. 어쩌면 순수시에 충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도 여느 문사처럼 벼슬살이를 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 길을 떠날 때나 전별을 할 때나 경치를 감상할 때나 술을 마실 때나 꽃을 볼 때 하나의 의식처럼 시를 썼던 것이다. 시는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그는 인정이 많았다. 18세 연하의 가마득한 후배인 김시습이 서울에 와도 자기를 찾지 않았다. 그는 김시습이 머무는 집의 주인에게 술을 많이 먹이라고 당부하였다. 김시습이 술에 취해 꿇아떨어지자 가마를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이런 인정이 시 속에 감상으로 표현된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봄 시름>을 보자.

소년 시절엔 명절이 좋아, 한결 같이 마음 조려 기다렸건만
 늙어 가면서 세월 가는 게 싫은데, 빠르기가 한 갑절 더하네.
 해 바뀌어 새 봄이 되니, 물태(物態)가 몰래 달라졌네.
 사물을 대하면 저절로 감탄만 하지만 가슴속은 도리어 담대하여라.
 영화를 누리도 잠깐이거늘 수많은 꽃인들 어이 끝내 보전하랴.
 꽃답고 화사함은 점점 소멸되는데 확확 지나는 세월 누가 잡으랴.
 근심은 봄과 같이 함께 오건만 봄은 가도 근심은 오히려 남네.
 남은 근심 나에 붙어 같이 따르니 어찌 봄이 나를 속였다 하지 않으리.

(이재수 역)⁷⁾

아마도 고관을 지낼 때인 중년에 지은 듯하다. 그가 근심 곧 회한 속에 살면서 봄과 꽃에 비유하여 자신의 심사를 노래한 것이다.

7) 보한재집 10권, 오언 고시의 춘수(春愁).

남원 광한루에 올라 많은 명사들의 현판 시를 보고 이렇게 차운하였다.

오고 가다 오늘에야 비로소 누대에 올라
 반백의 친구 서로 만나 반기노라.
 부운(浮雲)의 부귀 공명 따질 것이 못되니
 임천(林泉)의 흥취 아직 버리지 못하겠노라.
 십년 동안 몇 번이나 고향 그리워했건만
 도리어 천리 길 나그네 되어 유람하네.
 인생에는 천명이 있음 이제야 믿겠노니
 공명은 물리치기도 어렵고 또한 구하기도 어려워.(성백효 역)⁸⁾

현세의 부귀공명보다 강호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또 고향인 나주로 가는 길에서는 이렇게 읊었다.

고향 사람 천리 길 장마 속에 와서,
 전하는 한 통 편지 만금보다 귀하네.
 세상 속인 공명 만족한 줄 안 지 오랜데,
 가을 바람에 또 고향 생각 나누나.(정기태 역)⁹⁾

“세상 속인 공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족의 삶을 노래하며 어릴 적 추억 속에 어른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7. 표현을 중시한 평이한 문장

신숙주의 후배로 일대의 문장가인 서거정은 그의 시문집 서문에 이렇게 썼다.

8) 보한재집 9권, 7언 4운(韻)의 차남원광한루운(次南原廣寒樓韻)의 뒤 연(聯).

9) 보한재집 6권, 7언 소시의 기나주유향소(寄羅州留鄉所).

문장을 지으면 호방하고 너럭하여 글자 하나 빠짐이 없이 두루 미쳤다. 아
름답게 꾸미는 것을 공교롭게 여기지 않고 깎거나 새기는 것을 예스럽다고 여
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 평이함이 마치 좋은 벼나 보리가 훌륭한 맛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정교한 색깔이 찬란하게 빛남은 마치 상서로운
구름이나 빛나는 별처럼 스스로 빛남을 숨길 수가 없는 것과 같았다. 이를 사
람들이 우러러보고 듣게 되었다.¹⁰⁾

이는 그의 기(記) 서(序) 서간(書簡) 묘도문(墓道文) 등 일상적으로 지은
글을 두고 평가한 말일 것이다. 곧 평이한 표현, 짜임새 있는 문장을 칭찬한
것이다. 그의 친구 윤자영에게 보낸 설(說)을 보기로 들어보자.

그대도 농사 짓기와 베 짜기에 대해 아는가? 모를 심고는 김매고 김매고는
거두어들이는 것이 농사꾼의 일이라네. 누에 쳐 실 켜고 실을 켜서 짜는 것이 베
짜는 사람의 할 일이라네. 심지 않으면 벼 싹이 자라지 않을 것이며 누에를 치지
않으면 고치가 없을 것이네. 그러니 밭 갈고 실 켜는 일을 어디에 쓸 것인가?

또 심어 싹이 났더라도 김을 매지 않는다면 그 싹은 잡초가 덮어 버릴 것
이며 누에 쳐서 고치가 뿔어졌더라도 실을 뽑지 않는다면 그 고치에는 나방이
나오고 말 것이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거두어들이기를 바라고 어떻게 베 짜기
를 바라겠는가? 끝내는 굶주림과 추위가 있을 뿐일 것이네.

선비가 글을 익히는 것도 이와 같다네. 글을 익히는 데에 뜻을 두는 것은
벼를 심고 누에를 치는 일이고 글 익히기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김매고 실 켜
는 일이라네. 그리하여 덕이 무르익고 이름이 세워져서 모든 공업에 쓰게 되면
그게 바로 거두어들이는 것이요 베를 짜는 일일 것이네.¹¹⁾

윤자영이 시골로 내려가자 이 글을 지어주어 게으름을 피지 말고 학문에
열중하라는 글을 지어 장려한 것이다. 앞의 비유가 너무 쉽고 적절하다. 일상

10) 보한재집 서문.

11) 보한재집 16권, 제문 서간 등의 가직설(稼織說).

생활의 일을 들어 교훈을 주고 있다. 문사들이 흔히 마구잡이로 인용하는 고사(故事)를 한 줄도 옮겨다 쓰지 않았다. 이런 발상과 문체는 누구나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 후배인 김종직은 시문집 서문에서 이렇게 평가하였다.

그가 문장을 지으면 모두 인의와 충신에 근본을 두었고 여유 있고 화창하며 뛰어나고 넓어서 번거롭게 먹줄을 대서 깔고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법도가 있었다. 전한 후한의 요체와 현묘, 성당(盛唐)의 뛰어난 작품을 읊조리고 외우는 것을 방불케 하였다. 비록 붓을 놀려 회룡 삼아 갑작스레 지어도 또한 실로 덕 있는 사람의 말씀이 되었다.¹²⁾

이 앞부분의 평가는 주로 그가 지은 공거문(公車文)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국가에 필요한 여러 공문서를 지으면서 법도와 사리에 맞지 않고 표현이 애매하면 말썽거리가 된다. 더욱이 조선 초기 명 나라는 여러 가지 티끌을 잡으면서 사대 문서의 표현을 두고 시비를 벌이기 일쑤였다.

그는 사대 문서만이 아니라 <해동제국기>와 <북정록(北征錄)> 등 주변국의 여러 사실과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와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국조보감(國朝寶鑑)>과 <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을 편찬하고 서문을 썼으며 <국조오례의>와 <세조실록>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그가 편찬한 주요한 전적만도 14종 이상을 헤아린다. 나라를 처음 열고 여러 제도 체제의 기반을 정비할 때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전적을 엮어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국가에 관련되는 저술과 문장을 많이 쓴 탓인지 개인의 문학 적 작품은 그의 명성과는 달리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아마도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한 탓일 게다.

12) 보한재집 서문.

8. 마무리 말

시와 문장에서도 풍부한 표현을 중시하면서도 고사를 거의 인용치 않았다. 이는 뜻과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시와 문장은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실질을 숭상한 모습이다. 이런 문장 구사와 시 작법 태도는 김종직의 말대로 후배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질을 숭상하고 허식을 배척하는 문학 표현 양식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상 경향은 유교 사회에 살면서 지나치게 교조에 빠져들지 않고 개인의 수양이나 정치의 요체로 여겼으며 불교 등 다른 학문 사상을 비판하지도 않았다.

아무튼 그가 죽은 뒤 조선 시대 400여 년 동안 시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교 가치관으로 따져볼 때 충분한 근거가 있겠으나 업적보다 절의를 제일의(第一義)로 내세우는 목은 관념의 소산일 것이다. 그의 문학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물론 신숙주는 김시습과는 달리 시나 소설 문학을 전문적으로 쓴 시인 문사는 아니었다.

또 농민의 고통이나 서민의 삶을 작품에 담은 서사적 작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문학도 학문 사상을 토대로 한 여러 업적과 함께 신중한 조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시도로 쓴 것이다.